

건강한 속사람 I.

죄성은 자신의 문제를 용납하지 못하고, 언제나 방어하기에 급급하다.

1. 성경은 성도의 성숙함을 강조한다.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태도에 집중한다. 온전한 삶의 태도가 이 땅에서 성숙함으로 열매맺게 한다.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신부'의 모습이다. 마지막 때 교회와 성도들의 정체성은 '신부'이다. '신부'에 대한 교회의 정의는 계시록 말씀에 잘 나타나있다.

[요한계시록 19:7]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언약의 성취는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으로 모든 것이 완성된다. 그 날은 성도에게 있어서는 심판의 날이 아니라, '혼인잔치'가 열리는 날이다. 놀라운 사실은 '혼인날이 언제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성경의 단서는 하나이다. 아무도 그 때와 시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 날이 얼마나 임박했느냐에 대한 '시즌'은 알 수 있다. 그 바로미터가 바로 '신부의 단장정도'이다. 어린 양의 혼인날이 임박한 순간은, 신부인 교회와 성도가 스스로 단장을 끝낸 시점이라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결혼예식은 신부의 단장이 끝나지 않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가 집중해야 할 영역은 '속사람'의 단장에 있다.

2. 속사람은 언제나 겉사람을 보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

[에베소서 3:16]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고린도후서 4:16]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에베소서 4:22-24]

22 너희는 유희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23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골로새서 3:9-10]

9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 버리고

10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성경은 언제나 내면의 속사람에 집중한다. 그리고 내면의 속사람(새사람)을 겉사람(옛사람)과 비교한다. 성도는 보여지는 겉사람을 경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속사람을 경작하는 사람이다.

* 영적원리

겉사람은 속사람을 제어할 수 없으나, 속사람은 겉사람을 제어할 수 있다.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다.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의 특징은 하나이다. 겉사람에 집중하고 있는가, 속사람에 집중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3.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영적원리 - 영적간극

우리 내면의 속사람의 상태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보여지는 열매를 보며 알게된다. 속사람은 바울의 로마서 고백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려고 애를 쓴다. 문제는 그 속사람을 좌절시키는 일들이 실제적 삶에서 죄의 결과로 일어난다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싶으나, 실제적 삶의 결과는 내가 원하는 바의 삶의 열매가 아닌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열매가 아닌 육의 열매는 언제나 내면의 속사람을 좌절 시킨다. 이 시점이 중요하다. 겉사람의 실패의 레벨과, 내 속사람의 레벨이 차이가 나는 만큼 속사람은 강건해진다.

온전함이란 무엇인가? 내면의 속사람과 겉사람이 일치하는 것이다. 영혼육이 온전히 하나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내면의 마음과 겉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이 일치하는 것이다. 이 상태가 온전함이며, 온전함의 모델은 예수님이시다.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성도는 이 간극을 보며 고민한다. 영적으로 내가 알고있는 것, 내가 원하는 바는 분명히 있는데 삶에서 온전히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고민한다. 그 때 건강한 속사람의 바탕이 된 사람은 그 간극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보고, 고민한다. "어떻게 이 간극을 줄일 수 있을까?" 를 자신 스스로에게 질문한다. 내면이 건강하다는 것은 '자신의 약점과 부족함을 용납할 수 있는 것' 을 말한다. 이런 사람의 내면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물론 실패로부터 오는 좌절과 실망이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패로 인한 좌절과 두려움이 내면의 속사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한다.

4. 건강함에 대해서

'몸이 건강하다' 는 것은 무엇인가? 건강하지 않은 것들이 몸으로 침투해 올 때, 자연스럽게 안 좋은 것들에 대한 차단과 방어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내 몸에 해로운 일들에 대하여 몸이 반응하며 대처한다.

생각이 건강하다는 것도 같은 원리이다. 생각이 건강한 사람은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 올바른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 역시 본능적으로 좋지않은 생각, 부정적인 생각, 내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여러 생각들에 노출은 될 수 있으나 용납하지 않는다. 이들은 공동체 안에서도 남을 비방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여러 생각들에 대하여 본능적으로 불편해한다. 용납하지 않는다. 그 불편함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건강한 생각의 영역에 좋지않은 생각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영역에 경고 사인이 들어온 것이다.

영적인 영역도 마찬가지이다. 영적인 영역의 문제는 언제나 '죄'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을 파괴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이 건강하다는 것은 영이 '죄'에 대하여 둔감하지 않다는 것이다. 죄에 노출될 수 있으나 본능적으로 죄에 노출되었을 때 경고등이 들어온다. 그리고 이에 반응하며 대응한다. 이러한 모든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5. 죄성에 대한 고찰

성도의 속사람을 파괴하는 나쁜 '죄성' 은 무엇인가? '죄성' 이란 '의도성' 을 말한다. 의도란 무엇인가? '숨은동기' 를 의미한다. 대표적인 숨은동기가 선악과 사건이다. 금단의 선악과를 먹은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창조에 만족하지 못하는 자아이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다. 그냥 선악과를 먹은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의도성' 을 가진 마음이다. 하나님처럼 되고싶은 숨은동기가 바로 죄성이다.

가인의 예를 들어볼 수 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는 하나이다.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고 가인의 제사를 받은 일에 대한 질투이다. 그런데 가인의 자아는 아벨을 질투하는 자신을 스스로 용납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창세기 4:5-7]

5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6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네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7 네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네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하나님은 가인의 마음안에 있는 죄성을 보셨다. 그래서 가인에게 경고해주셨다.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라고 죄의 속성을 말씀해주셨다. 죄는 언제나 '지배'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 번져나가고 확장되어가는 속성이 있다. 그래서 죄문제는 언제나 심각하다. 왜 그런가? 죄의 샅은 결국 사망이기 때문이다. '죄' 라는 바이러스를 고칠 인간의 백신은 아무것도 없다.

가인의 의도성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경고를 알면서도 스스로 그렇지 않은 척, 죄에게 그 문을 열어 주었다는 것이다. 정리하자. '모르고 지은 죄는 없다' 죄는 영적인 문제이다. 죄는 언제나 의도적이다.

죄를 지어본 경험을 생각해 보자. 하면 안되는 것을 알면서도, 발은 죄의 길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 왜 그런가? 의도성 때문이다. 의도성은 죄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이다. 의도성의 뿌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하고싶은 인간의 욕망에 근거한다.

6. 의도성이 있는 죄성은 공의와 정의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방어적'이다.

건강하지 못한 몸은 무엇인가? 죄의 바이러스가 침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대응하지 못하는 몸을 말한다. 몸으로 말한다면 건강한 세포가 나쁜 세포의 영향력 앞에서 아무런 힘을 못쓰고 있는 상태이다. 자기반응이 멈추어진 상태이다. 그리고 계속 용납하게 한다. 죄를 계속 용납하고 있는 마음의 상태는 언제나 정의와 진리의 음성 앞에서 방어적인 모습을 취한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아담과 하와의 경우에 잘 나타나 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후의 첫 번째 반응은, 건강하지 못한 몸과 정신과 영의 상태를 본 것이다. 그 모습이 그들에게는 수치심과 두려움과 정죄감으로 나타났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자신들의 상태를 보며 스스로 놀란 것이다.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가 바로, 죄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의 첫 모습이다. 그래서 그들은 숨기로 결정했다. 숨는 마음이 자신을 감추는 '방어적인 태도'이다. 방어적인 마음은 자신의 상태를 용납하기가 너무 힘든 것이다. 그래서 편하게 숨는 것이다. 부족한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는 상태를 '열등감'이라 말한다

그래서 열등감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방어적이다. 가인의 태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자신의 제사가 용납되지 못한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죄로 인하여 인간에게 생긴 열등감 때문이다. 그래서 가인은 비교대상이 되었던 아벨을 죽였다. 아벨을 보고있는 한 열등한 자기자신이 너무나 괴롭기 때문에, 거침없이 비교대상을 죽이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런 죄성은 다윗의 성장을 질투했던 사울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다윗과 비교되는 '열등한 자기자신' 을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다. 그래서 편하게 제거버튼을 누르는 것이다.

* 가인의 방어적 태도

[창세기 4:9]

주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가인은 공격적인 모습이다. 하나님께 반문한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신 적이 없는데 스스로 자기자신을 용납하지 못한다. 그래서 묻는 것이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스스로 만든 방에서 나오지 못하는 유약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 모습을 보이기 싫으니 방어적으로 반문하는 것이다.

7.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오직 한 길은, 죄성에 대한 깊은 고민으로부터 시작된다.

(1) 건강한 영혼육의 몸을 이루어야 한다.

건강한 세포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 영혼육 모두의 건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건강한 몸, 건강한 생각, 강건한 속사람이 필요하다. 갈라디아서 5장은 속사람의 내면안에 열리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 말한다. 건강함의 열매는 내면안에 그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하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5:16]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을 견딜 수 있는 건강한 몸을 가지라는 것이다. 강건한 속사람을 이루는 길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길임을 명심하라.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사이에 갈등이 없게 해야한다. 구체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2) 죄성에 노출 되었어도 지배받지 말라.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능력이 필요하다. 죄를 다스리는 길은 승리의 경험이다. 이겨본 경험이 있어야 한다. 죄의 문제가 나타났을 때 피하지 말고 직면하라. 부족해도 이기는 법을 배우라. 배움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의 능력을 이론이 아닌 실제로 경험하게 된다.

(3) 방어하지 말고 용납하라.

진리 앞에서 자신의 잘못이 노출되는 것이 아프고 힘들어도 방어하지 말라. 들으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면, 들을 수 있고 배울 수 있다. 마음가짐의 문제이다. 예를들어 존경하는 선생님의 지적은 듣고 배우려고 한다. 왜 그런가? 마음에서 동의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언제나 듣고 배우려는 마음으로 경작한다면, 어디에서나 배우며 들을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

(4) 부족해도 조금씩 속사람과 겉사람의 간극을 줄여가라.

변화하고자 하는 갈망을 가진 사람은 조금씩 간극을 줄어나갈 것이다. 이것이 가장 아름답고 온전한 자로 나아가는 길임을 명심하라.